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147

JCCT 2022-9-17

창업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ntrepreneurship Efficacy and Subjective Norm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rt

김혜진*, 정지복**

Hae-Jin Kim*, Jibok Chung**

요약 창업의 불확실성과 실패부담감은 대학생과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약화하는 요인이며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비율이 저조한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예술전공 대학생의 주관적 규범과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하였다. 연구결과 창업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 창업활동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 효능감 또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창업 지도를 위해 창업에 대해 주변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과 시제품제작 활동 지원으로 창업 효능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창업 효능감, 주관적 규범, 창업 의도, 창업 지원

Abstract The uncertainty of start-ups are factors that weake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and prospective founders, and are also the cause of the low rate of entrepreneurship among art college students.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ubjective norms entrepreneurial efficacy on start-up intentions. Studies have shown that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subjective norm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tart-up intentions. In addition, start-up education support has been shown to control the impact of subjective norms on start-up intentions, and start-up activity support has been shown to control the impact of subjective norms on start-up intentions, while start-up commercialization support does not control the impact of start-up efficacy or subjective norms on start-up inten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tart-up and effectively guide the start-up of art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show the social support of the people around them for the start-up and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start-up by supporting the prototyping activities.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fficacy, Subjective Norms,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ial Support

1. 서론

창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실패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부담감은 학생을 비롯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의도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특히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우 전공 특성상 순수 창작 활동에 관심이 많지만 기업가 정신, 기술 사업화, 네트워킹 등 창업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공학

*정희원,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27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5일

Received: July 27, 2022 / Revised: August 22, 2022

Accepted: September 5, 2022

**Corresponding Author: jibchung@kongju.ac.kr

Dept. of Retail Management, Kongju National Univ, Korea

계열 대학생에 비하여 대학생 창업률이 높지 못한 현실이다 [2]. 또한, 공연예술 전공자는 타 전공에 비해 독립성이 높지만 사회활동 조직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공예 활동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3, 4]. 본 연구에서는 예술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주관적 규범과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창업지원제도의 인지 및 기대수준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업 의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3장은 연구모형 설계와 설정된 가설을 설명한다. 4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창업 효능감(Entrepreneurship Efficacy)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한다 [5].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며 실패의 원인을 노력이나 능력 부족보다는 외부 상황으로 귀속하는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6]. 창업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창업연구에 적용한 용어로 창업 효능감은 창업 의도의 강력한 선행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창업 효능감은 창업자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역할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창업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7, 8]. 선행연구를 보면 창업 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나 창업 의도가 높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의 설문문항을 선택한 후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1].

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의 행동에 대해 개인의 주변 인물들의 견해 및 생각, 행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과 강한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행동하려는 자가 받아들여 지각

하는 정도를 말한다 [12]. 대학생의 개인 특성 및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5]. 또한, 주관적 규범은 경력단절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와 창업 의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한편, 한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직접적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예술전공 대학생의 경우 타계열 전공에 비하여 초등 또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전공과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 및 주변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창업 의도에 주관적 규범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의 설문문항을 선택한 후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1].

3. 창업 지원(Entrepreneurship Support) 인식

창업지원 인식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예비)창업자들의 인식수준을 의미한다 [18].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지원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컨설팅, 자금지원으로 구분하거나 창업교육 지원, 창업활동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해 있다 [19, 20].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지원 인식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 18, 19]. 또한,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와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지원, 창업활동지원, 창업사업화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제도의 인지와 기대수준에 대해 9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창업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s)

창업 의도는 창업의 모든 과정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상태이며 출발 단계를 의미한다 [21]. 국내에서도 창업 의도의 선행변수를 찾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우선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15]. 창업 효능감 또한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22, 23]. 또한, 창업지원제도의 인식수준은 창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24-26] 특히

창업교육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교육과 창업의도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의 설문문항을 선택한 후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1].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해 대전·충남 지역의 예술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Convenience sampling) 방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2년 7월이며 총 220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10부를 제외한 21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과 가설검증에는 SPSS 27을 이용하였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 의도를 종속변수로, 창업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을 독립변수, 창업지원제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고 가설 H1~H4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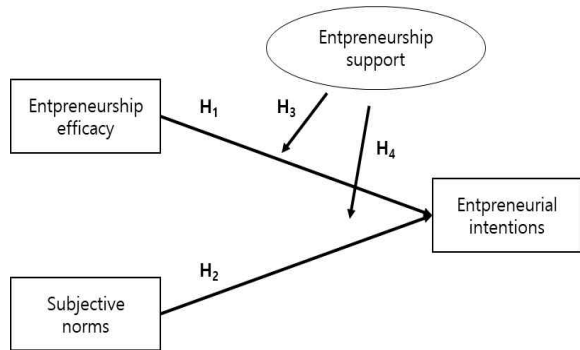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 H1: 창업 효능감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H2: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H3: 창업 지원은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 H3a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 H3b 창업활동 지원은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3c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4: 창업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4a 창업교육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4b 창업활동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H4c 창업사업화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27명(14.1%), 여학생은 164명(85.9%)으로 전공분야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88명(41.9%)은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응답자의 106명(50.5%)은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4학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세부전공은 “공예(77.1%)”, “디자인(10.0%)”, “순수미술(6.7%)”, “음악(2.4%)으로 나타났다. 부모·형제 중에 창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0명(42.9%)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진로에 대해(복수응답)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72명(34.3%), 창업을 고려하는 응답자는 121명(57.6%), 작품활동 희망자는 143명(68.1%)으로 나타나 전공 특성상 작품활동을 희망하는 응답자 가장 높았지만, 진로보다는 창업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나 예술전공 대학생이 창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 210명)
 Table 1. Demographic profile (n=210)

성별	빈도	%	창업교육 경험	빈도	%
남성	27	14.1	있음	88	41.9
여성	164	85.9	없음	106	50.5
학년	빈도	%	세부 전공	빈도	%
1학년	45	21.3	음악	5	2.4
2학년	63	30.0	순수미술	14	6.7
3학년	50	23.8	디자인	21	10.0
4학년	52	24.7	공예	162	77.1
부모·형제 창업경험	빈도	%	희망진로 (복수응답)	빈도	%
있음	90	42.9	취업	72	34.3
없음	115	54.8	창업	121	57.6
무응답	5	0.02	창작 활동	143	68.1

IV. 연구 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을 초과하고 있으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0.5를 초과하고 있어 변수의 신뢰성과 수렴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측정변수 문항과 신뢰도
Table 2. Measurement variables and reliability test

변수	최초문항	최종문항	크론바흐 알파	AVE
ES	9	8	0.885	0.50
INT	5	5	0.884	0.59
EE	5	5	0.745	0.64
SN	4	4	0.790	0.55

ES: Entrepreneurship support,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 Entrepreneurship efficacy, SN: Subjective norms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MO (Kaiser-Meyer-Olkin) 지수는 0.823,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chi^2=2375.969$, $df=231$, $p=0.0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3.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변수	측정	요인 적재량	고유 값	변동 비율(%)	평균	표준 오차
ES	es8	0.870	5.75	26.2	2.60	0.072
	es9	0.837			2.59	0.070
	es6	0.778			2.78	0.068
	es5	0.775			2.63	0.067
	es2	0.710			2.76	0.065
	es4	0.698			2.20	0.073
	es7	0.685			2.50	0.072
	es1	0.545			2.19	0.070
INT	in3	0.846	3.72	17.0	3.31	0.094
	in2	0.798			4.03	0.075
	in4	0.796			3.43	0.084
	in1	0.779			3.36	0.082
	in5	0.767			4.10	0.076
EE	ee4	0.837	2.09	9.5	3.95	0.056
	ee3	0.777			3.84	0.059
	ee2	0.729			4.05	0.057
	ee5	0.671			3.31	0.074
	ee1	0.436			2.76	0.074
SN	sn3	0.847	1.82	8.3	3.87	0.061
	sn4	0.843			3.89	0.062
	sn2	0.773			3.66	0.062
	sn1	0.587			3.36	0.077

ES: Entrepreneurship support,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 Entrepreneurship efficacy, SN: Subjective norms

또한, 연구 모형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계수와 AVE 값을 비교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E의 제곱근은 상관계수 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변수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27].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EE	SN	IN	ES	AVE
1. Entrepreneurship efficacy(EE)	1	0.307**	0.355**	0.126	0.50
2. Subjective norms(SN)	-	1	0.324**	0.137*	0.59
3. Entrepreneurial intentions(IN)	-	-	1	0.212**	0.64
4. Entrepreneurship support(ES)	-	-	-	1	0.55

* $p<0.05$, ** $p<0.01$

2. 가설검증 결과

1) 직접효과 분석

직접적 효과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의 단계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 효능감($\beta=0.282$, $p<0.01$), 주관적 규범($\beta=0.238$, $p<0.001$) 모두 창업 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 [8, 23]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절효과 분석

창업지원 정도에 따라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창업지원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창업지원은 창업교육지원(ES_1), 창업활동 지원(ES_2), 창업사업화 지원(ES_3)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5, 6,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지원 중에서 창업교육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0.797$, $p<0.05$) 창업지원 중에서 창업활동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beta=-0.847$, $p<0.05$). 그러나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 효능감 또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창업지원(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education)

	Indep.Var	B	S.E	β	t	p	F	R ²
1단계	constant	0.964	0.407		2.372	0.019	24.781	0.00**
	EE	0.424	0.100	0.282	4.263	0.000**		
	SN	0.315	0.088	0.238	3.595	0.000**		
2단계	constant	0.626	0.416		1.504	0.134	19.880	0.00**
	EE	0.400	0.098	0.266	4.075	0.000**		
	SN	0.280	0.087	0.211	3.227	0.001**		
	ES_1	0.223	0.076	0.184	2.916	0.004**		
3단계	constant	-2.644	1.306		-2.024	0.044	13.655	0.00**
	EE	0.777	0.312	0.515	2.489	0.014		
	SN	0.775	0.238	0.585	3.254	0.001		
	ES_1	1.530	0.502	1.259	3.045	0.003		
	EE·ES_1	-0.143	0.123	-0.536	-1.159	0.248		
	SN·ES_1	-0.202	0.094	-0.797	-2.156	0.032*		

Dependent variable: INT, *p<0.05, **p<0.01, ES_1: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education),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Entrepreneurship efficacy, SN:Subjective norms

표 6. 창업지원(창업활동)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activity)

	Indep.Var	B	S.E	β	t	p	F	R ²
1단계	constant	0.964	0.407		2.372	0.019	24.781	0.00**
	EE	0.424	0.100	0.282	4.263	0.000**		
	SN	0.315	0.088	0.238	3.595	0.000**		
2단계	constant	0.688	0.425		1.620	0.107	18.091	0.00**
	EE	0.411	0.099	0.273	4.152	0.000**		
	SN	0.295	0.087	0.223	3.378	0.001**		
	ES_2	0.156	0.075	0.131	2.071	0.040*		
3단계	constant	-0.162	1.382		-0.117	0.907	11.897	0.00**
	EE	0.962	0.327	.638	2.940	0.004		
	SN	-0.029	0.264	-0.022	-0.110	0.913		
	ES_2	0.497	0.521	0.417	0.955	0.341		
	EE·ES_2	-0.224	0.125	-0.847	-1.787	0.050*		
	SN·ES_2	0.133	0.100	0.533	1.335	0.183		

Dependent variable: INT, *p<0.05, **p<0.01, ES_2: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activity),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 Entrepreneurship efficacy, SN: Subjective norms

표 7. 창업지원(창업사업화)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commercialization)

	Indep.Var	B	S.E	β	t	p	F	R ²
1단계	constant	0.964	0.407		2.372	0.019	24.781	0.000**
	EE	0.424	0.100	0.282	4.263	0.000**		
	SN	0.315	0.088	0.238	3.595	0.000**		
2단계	constant	0.763	0.426		1.791	0.075	17.168	0.000**
	EE	0.411	0.100	0.273	4.127	0.000**		
	SN	0.308	0.087	0.232	3.522	0.001**		
	ES_3	0.107	0.069	0.097	1.542	0.125		
3단계	constant	0.390	1.273		0.306	0.760	10.219	0.000**
	EE	0.469	0.317	0.311	1.477	0.141		
	SN	0.347	0.253	0.262	1.372	0.172		
	ES_3	0.249	0.462	0.227	0.539	0.590		
	EE·ES_3	-0.022	0.117	-0.089	-0.185	0.853		
	SN·ES_3	-0.015	0.093	-0.064	-0.161	0.872		

Dependent Variable: INT, *p<0.05, **p<0.01, ES_3: Entrepreneurship support(Entrepreneurial commercialization),
 I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EE: Entrepreneurship efficacy, SN: Subjective norms

V. 결 론

본 연구는 예술전공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 및 취창업 지도와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결과 창업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교육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 창업활동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 효능감 또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성공에 대한 기대와 노력 의지가 강하므로 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다양한 창업활동 지원(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 효능감이 높아지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창업을 고려할 때 부모 또는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중요시하며 창업교육 지원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주변인들의 긍정적 인식을 보여줄 때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효능감 향상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창업교육 지원과 창업활동 지원은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창업지원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창업지원을 수혜받은 경험이 부족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술전공 대학생에 대한 창업 지원 홍보와 사업확대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예술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창업 의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대상이 특정 지역 및 특정 전공에 한정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으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전공의 설문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공 분야별 비교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향후, 표본 수와 집단을 다양하게 확대할 경우 집단별 유의미한 특성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 고려한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 의도의

선행요인을 추가한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S. Ki, A Study 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Ph.D. Thesis, Soongsil University, 2020.
- [2] J. Y. Bian, G. Yoon, and J.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6, No. 4, pp. 112-140, 2021. <https://doi.org/10.24878/tkes.2021.16.4.112>
- [3] M. S. Hong and S. M. Nam, "A Study on effect of Craft Activities Experience Factor to Self-esteem and Social-support for middle-aged wome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3 pp. 67-74, 2020. <https://doi.org/10.17703/JCCT.2020.6.3.67>
- [4] J. H. Lee and J. O. Ahn,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ity Formation of the Female Dance, Music, Art and General Major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28, pp. 47-53, 2000.
- [5]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1997.
- [6] S. J. Lee., H. R. Kim, and H. S. Mo,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Korean and Mathematics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4, pp. 675-697, 2018.
- [7] N. G. Boyd and G. S. Vozikis,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No. 4, pp. 63-77, 1994.
- [8] J. H. Kang and D. W. Yang,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493-507,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493>
- [9] Y. J. Heo,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Work Value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8.

- [10]B. H. Ho,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and Society's Start-up Support and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Role of Self Efficacy and Risk Taking and Moderating Role of Mentoring, Ph.D.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6.
- [11]E. J.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Job Selection Factors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and Startup Intention, Master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2020.
- [12]I. Ajzen, From intention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I. Kuhl & J. Beckmann (Eds.), Springer, pp. 11-39, 1985.
- [13]S. J. Han, A Study on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Nor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5.
- [14]I. S. Kwon, K. H. Kim, and M. K. Seo, "The Effects of Subjective Norms on the Start-U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4, No. 4, pp. 91-100, 2019. <http://doi.org/10.16972/apjbve.14.4.201908.91>
- [15]H. S. Lee and M. J. Baek,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ubjective Norm," *Advancing Small Enterprise Innovation Research*, Vol. 15, No. 2, pp. 65-84, 2012.
- [16]J. H. Choi, N. H. Lee, and K. J. Hw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Interrupted Women Personal Attitude and Subjective Nor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4, No. 4, pp. 113-132, 2019. <https://doi.org/10.16972/apjbve.14.4.201908.113>
- [17]J. H. Kim, The Effects of Subjective Norm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Ph.D. Thesis, Soongsil University, 2018.
- [18]H. S. Ahn, and W. Yang,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Startup Suppor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4, No. 6, pp. 378-410, 2019.
- [19]Y. J. Lee and Y. Yang, "An Impact of Startup Business Performance by Entrepreneurs' Perceived Importance, Satisfaction, and Level of Meeting to Expectation over Government Startup Business Aid Progra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3, No. 1, pp. 31-41, 2018. <https://doi.org/10.16972/apjbve.13.1.201802.31>
- [20]J. H. Song, "Study For Variables Affecting Startup Willings of Performance Art Major Students : Based on Mediate Effects By Self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6, No. 3, pp. 157-176, 2021. <https://doi.org/10.24878/tkes.2021.16.3.157>
- [21]B. Bird,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3, No. 3, pp. 442-453, 1988.
- [22]Y. H. Kim and D. W. Ya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Fear of Entrepreneurial Failure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6, No. 4, pp. 1-25, 2021. <https://doi.org/10.24878/tkes.2021.16.4.1>
- [23]J. H. Park and M. J. Choi,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 No. 2, pp. 9-19, 2016. <https://doi.org/10.16972/apjbve.11.2.201604.9>
- [24]Y. J. Cho and B. Y. Lee, "A Study on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1, No. 4, pp. 17-25, 2016. <https://doi.org/10.16972/apjbve.11.4.201608.17>
- [25]I. B. Lee, M. J. Kang, and J. W. Kim,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Founders' on Startup Succes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1, pp. 361-370, 2022.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361>
- [26]J. S. Lee and S.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0, No. 3, pp. 61-74, 2015.
- [27]C. Fornell, and D.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